

유방암 생존자와 정상여성의 성적 행동 비교

박 정 윤(서울대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논문)

[연구목적] 유방암 생존자와 정상 여성의 성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유방암 수술 환자를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자] 유방암 생존자군은 서울 시내 일개 종합병원의 환자 자조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75명이었으며, 정상 여성군은 서울 시내 일개 주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성으로 140명이었다.

[연구도구] Wilmoth가 개발한 성적 행동 설문지-여성형을 사용하여 성적 행동을 7개의 영역 즉, 의사소통, 성기술, 성반응, 신체 상흔, 자기 접촉, 관계 질, 자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로 SPSSwin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Chi square로 동질성 검정하였으며, 유방암 생존자와 정상 여성의 WSBQ-F 성적 행동 총점과 각 영역별 점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유방암 생존자의 성적 행동 총점과 영역별 점수 차이를 폐경 유무를 공변수로 하여 수술 유형별, 수술 후 경과 기간별로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유방암 생존자와 정상 여성의 성적 행동에서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의사소통 ($p=.01$)과 성기술($p=.04$)에서는 정상 여성이 유방암 생존자보다 높았고, 관계질($p=.01$)에서는 오히려 유방암 생존자가 정상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 폐경에 이르지 않은 유방암 생존자, 유방의 부분절제술군, 수술 경과 기간이 긴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 보다 성적 행동 점수가 높았다.
3. 유방암 생존자의 성적 행동 점수 중 의사소통 영역은 정상여성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단측성 변형근치유방절제술 생존자가 부분절제술 생존자보다 낮았고, 수술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졌다.

[결론 및 제언] 유방암 수술 이후 보조 요법이 종료되고 1년 이내 기간동안 배우자와 성적 활동을 하는 동안 성적 행동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었으며, 이는 적어도 수술 이후 5년이 지나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정상여성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방암 수술환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시 성적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성과 관련된 부작용과 회복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